

광주 성당 40대 女 피살 사건 피의자

“신도들 미워” 묻지마 살인

지난 8일 광주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신도 살인사건'〈광주일보 9일자 6면〉의 피의자 박모(38·나주시 산포면)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성당 신도들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수법이 비슷한 북구 여의사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박씨를 지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박씨는 살인 혐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경찰은 박씨의 진술이 범행 후 극도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나온 점을 고려해 추가 진술보다는 '연쇄 살인'에 대한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우울증 치료... 아내와 이별에 분노 '여의사 피살' 범행 시인했다 부인

◇피살사건 개요=광주광산경찰은 9일 박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40분께 광산구 운남동 W성당 마당에서 신도 염모(여·47)씨를 흉기로 목과 손목 등을 네 차례 베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지난 4월 초 고국으로 돌아간 동골 출신 부인 K(25)씨를 찾으러 갔다가 '종교적인 문제로 K씨가 숨졌다'는 부인 가족의 말을 들은 뒤 교회나 성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신도들에 대한 적개심을 품어 왔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또 "범행 전 남구 월산동 등지의 교회와 성당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모 종합병원과 나주 모 병원 등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우울증을 앓아온 박씨가 아내와 이별한 데 따른 상실과 맹목적인 분노 등으로 '생면부지'의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의사 피살 사건 연관성 주목=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산경찰은 지난 5월 20일 밤 9시30분께 북구 용봉동 S교회 인근 앞길에서 발생한 여의사 안모(여·43)씨 피살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전 한때 안씨 피살 사건의 연관성을 인정했다가 곧바로 부인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건 피해자 모두 잔인하게 목이 베어 살해된 점 ▲살해 당시 피해자들이 꽃무늬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은 점 ▲범행 장소가 교

회와 성당인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또 범행 후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점과 피해자들의 신장이 155~158cm로 비슷한 점, 사건 발생 당시 용의자 추정 연령대가 30대 전·후반이라는 점 등도 일치한다.

특히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전력이 있는 박씨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여의사 안씨가 근무했던 모 종합병원에서 36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과 여의사 피살사건 발생 직후 자신이 타고다니던 프라이드 승용차를 처분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두 피해자의 사체를 검안한 전남대 병원 의사는 "동일범 소행으로 보일 만큼 범행 수법이 비슷했다"고 밝혔다. 한편, 두 사건이 발생한 W성당과 S교회는 6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박씨 주소지에서는 각각 26km, 30km 거리다.

◇피해자들은 '누구?'=최근 잇따라 살해된 두 여성은 모두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염씨는 장성 모 병원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으며, 천오빠는 법조계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동료는 "염씨가 착실하고 씩씩해 대인관계가 좋았다. 업무 능력도 뛰어났다"고 기억했다.

광주 모 종합병원에서 여의사로 일해온 안씨는 가족들 대부분이 의사 또는 교수들이다. 남편도 광주 모 병원에서 의사로 재직 중이다. 안씨 피살 직후 주변인들은 "누구와 말다툼한 번 안했을 정도로 차분하고 현명한 동료였는데, 살해당한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 모 성당에서 여성 신자를 살해한 피의자 박모(38)씨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의경들이 9일 낮 피의자 박모(38)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렸다고 지목한 황룡강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울증·국제결혼 실패 공무원에서 살인자로

피의자 박씨는 누구

'여성 신도 피살사건'의 피의자 박모(38)씨는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 동네 주민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라며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의 삶은 수년 전 우울증 및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뒤바뀌었다.

박씨는 광주 C대학교 1학년을 중퇴한 뒤 곧바로 육군 모 부대에 입대했다. 군 전역 후 세무 공무원 시험을 치러 전북 모 세무소에 임용됐다. 18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박씨는 법무부 소속 교정직 공무원에 합격한 뒤 또다시 1년 6개월 만에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주식 투자에 손을 댔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광주에서 영업을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씨의 평탄한 삶은 여기까지였다.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을 오갔다.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몽골출신 여성과

국제결혼까지 했으나 실패했다. 성격과 문화적 차이가 그 이유였다.

박씨의 병적 증세는 날로 심각해졌다. 광주와 전남지역 정신과 전문치료병원 수 곳을 들락거리며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친구 등 지인과 연락을 끊은 채 홀로 생활했다. 동네 주민들은 "박씨 집에서 큰 소리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안타깝다"며 "꽤 생활을 오래한 때만인지 그 집에 박씨가 사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박씨의 아버지(70)는 "5일 전 아들과 함께 광주 모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녀왔다. 며칠 전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했던 소리를 아침에 처에게 들었다"며 "착실한 자식이었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피의자 방에 광주시 지도 수십번 본 듯 하얗게 닳아

경찰, 범행 연관성 수사

9일 오전 11시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찾은 나주시 산포면 피의자 박모(38)씨의 집에는 노부부만 남아 있었다. 경찰은 우선 개량 한옥인 박씨의 방에서 구두와 옷가지를 수거했다.

어두컴컴한 방안에는 담배꽂초와 옷가지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낡은 서랍장에서는 손때가 묻은 가로·세로 50cm 크기의 '광주시 지도'가 발견됐다. 지도엔 주요 도로와 건물, 시설물 등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수십 번 본 듯 접힌 부분은 하얗게 닳아 있었다. 다만 범행 장소 등 특정 지점을 표시한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박씨가 이 지도를 갖게 된 이유와 범행과의 연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박씨의 방안에서 증거 수집을 하는 동안 박씨의 아버지(70)는 마당에서 이 과정을 맡아 지켜봤다. 경찰이 "이 신발 아드님 것이냐?"라고 묻자, 아버지는 "맞다"고 답하는 등 2시간여 동안 진행될 수사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이날 박씨의 집에서 출국기록이 적힌 여권과 상·하의 5벌, 구두, 면봉, 수건 2장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박씨의 아버지는 현장조사를 마치고 집 밖을 나서며 경찰과 취재진을 향해 "우리까지 처벌 받는 것 아니냐? 우리는 (아들에게) 이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나원침 (7851) 김중두



'성추행' 남구 부구청장 파면

광주시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 남구 부구청장 A씨를 파면 조치했다. 8일 남구 부구청장에서 직위해제된 A씨는 이에 따라 공무원 신분도 박탈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 중이나, 지역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높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3월 DDoS 해킹질 일당 '달미'

◇최근 한국과 미국의 주요사이 트가 DDoS(분산 서비스거부) 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DDoS를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이트를 마비시킨 국내 해커 일당이 경찰에 달미.

◇경찰청은 9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네트워크에 장애를 일으킨 모 게임업체 대표 최모(39)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양모(37)씨 등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

◇최씨 등은 악성코드가 결합된 음란물 등을 유포해 7천400여대의 PC를 감염시키고 이들 컴퓨터를 원격조종, 지난 3월 10차례에 걸쳐 온라인 심의시스템 등을 공격해 업무를 마비시킨 혐의.

/연합뉴스

한번 꿈어졌던
박진심은
누가 이어주는
갑자

재혼 12년
최원수 1위

The One
수많은 사람, 그러나 단 한사람

062)527-3388

나만의 특별한 유학, 알고자하 !!
아일랜드 유학 설명회

Study Ahead in English Language Semester 2009 in IRELAND!
아일랜드 중계 유학 및 교환학생 / 어학연수 / 편입생 / 워킹홀리데이

- 어학연수 전문기관에서 전문 강사
- 비자신청부터 나라, 장학금과 건강보험까지
- 교환학생 / 연수생 / 편입생 나라 다양성
- 학업과 취업 / 연수생 기회 풍부
- 영어실력 / 생활영어 / 어학연수 / 어학연수

“광주” - 7월 19일 일요일 2pm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203호

★ 아일랜드 유학 설명회 참가신청 ★
신청기간: 7월 10일 ~ 11월 10일 / 신청처: (주)아일랜드 유학 전문기관
문의처: (주)아일랜드 유학 전문기관 / 전화: 062-527-3388 / 홈페이지: www.aie.com